

Sheamit.T

■ 션티

- 고1 당시 영어 모의고사 5등급
-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4년 장학
- 국내파 통역장교, 4성장군 통역
- 최초 수능영어 주간지, 주간 KISS 저자
- 오르비 베스트셀러,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 저자

- 인강) 대성마이맥
- 현장) 대치 명인, 대치 디오르비, 대치 세정, 대치 미래탐구

검토

- Mi Youn
- Hyoung
- Hyeon Ho

디자인/편집

- Chae Hyeon
- Seong Gyun
- Yu Min

KISS Guide Book

■ 독보적인 수능영어 입문서

이 책은 고1 때 영어 모의고사 5등급을 받던 사람이, 고3 때는 1등급을 받고, 삼수 때는 밥먹듯이 100점을 받고, 대학에 와서는 수능영어를 넘어 영어의 끝판왕인 professional 통역사(통역장교)까지 이룬 사람이 쓴 것이고, 무엇보다 최근 몇 년 수능영어 출판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굳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수능영어'의 각 분야에 대한 선티의 insight와 direction이 담겨있습니다. 잘 탐독하셔서, 수능영어 및 선티 교재, 수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길 바랍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속력 ^^). 인생과 마찬가지로 수능공부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 외국인만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 지문 독해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선티가 지난 5년 이상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베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작성한 칼럼,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이 KISS Guide Book을 내놓습니다. 단순한 방향성 뿐만 아니라, 어휘 파트에서는 수능 '어원' 정리, 구문 파트에서는 동사, 전치사, 접속사, 자주 쓰이는 구문 정리 등을 통해 실제로 기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KISS Guide Book의 차별성은 '독해' 파트에 있습니다.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해석 연습을 한 후에 하나의 지문을 '어떻게 읽어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에 관해서는 선생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가장 심플하고 논리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ISS Logic, 'Keep It Short and Simple' Logic입니다. 긴장되는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가지의 방법론/전략은 기억나지도,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KISS Logic은 단 두 개의 도구, AB/PS만을 제공합니다. 모든 지문을 이 둘로 일관되게 읽고, 일관되게 문제를 풀니다. 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감으로' 읽지 마시고,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수능영어를 여행하는 데 있어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 KISS Guide book은 대성마이맥(mimacstudy.com)에서 선티의 강의와 함께 학습하면 더 좋습니다.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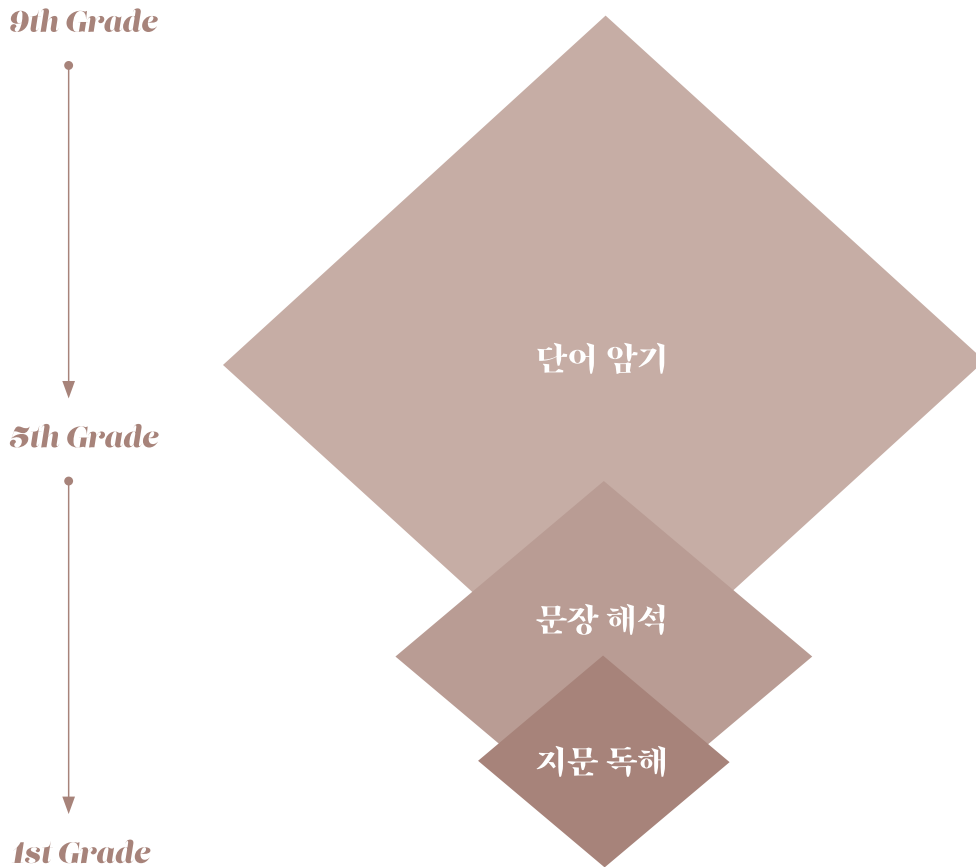
Intro	P. 4
Chapter 1 어휘	P. 8
Chapter 2 구문	P. 24
Chapter 3 독해	P. 66

Intro

■ 수능영어란 무엇인가?

수능영어가 아닌, ‘영어’에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이 있다. 앞 두 영역은 수동적 활동, 뒤 두 영역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수능영어는 이 4개의 분야 중 reading, 즉 ‘독해’만 물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평가원’ 듣기는 이 교재 / 수업을 학습하는 학생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럼에도 듣기가 부족한 친구라면 지금 당장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의 듣기 저자이기도 한 김희훈 저자님의 듣보잡을 구매해 학습한 후 올해 EBS 영어듣기 교재를 부단히 학습하시길 바란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수능영어를 한다는 말은 ‘영어 독해’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영어 독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영어로 된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장을 좀 뜯어보자. 둘로 나누면 ‘영어로 된 하나의 지문을 읽고 /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행위’가 된다. 수능영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지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영어’를 모르면 애초에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그러니 제발 어휘 암기와 문장 해석을 게을리하지 말자.**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할 줄 모르는데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사기꾼이다. 영어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는데 문제를 푸는 것과 히브리어 문제를 푸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수능 지문의 모든 단어를 알고, 모든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정 수준은(지문의 7, 80% 이상) 단어를 알고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고2 지문과 고3 지문, 그리고 수능 지문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내가 고2 때 지문 단어, 문장의 7, 80%를 알아서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수준으로 고3에 올라오면 지문의 단어와 문장을 5, 60%밖에 알지 못하니 탈탈 털리는 것은 당연지사.

정리하자. 수능영어는 수능+영어인데, 우선 이 '영어' 실력부터 고3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이를 활용해서 '수능독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단계로 치면 '단어 암기' → '문장 해석' → '지문 독해'가 되겠다. 등급이 낮을수록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의 비중이 훨씬 높아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좀 더 지문 자체의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Intro B

■ 무엇으로 수능영어를 공부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외운 단어로 열심히 문장 해석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영어’가 되는 상태에서 수능영어 지문을 독해하면 된다. “아니 쌤, 그러면 다시 단어장 파고 구문책 파야 하는 건가요?ㅠㅠ” 노노. 단어장만 파고 구문책만 파는 행위는 고2 때까지 하는 것이고, 절평영어 2,3등급 이상인 고3이라면 그레서는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다. 셉티가 원하는 것은 ‘총체적 학습’이다. 무슨 얘기냐, 단어장 따로, 구문책 따로, EBS 교재 따로.. 이런 게 아니라, EBS 및 기출 ‘지문’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어휘, 해석 학습도 하자는 얘기다.

현 수능영어 체제에서는 이 총체적 학습을 평가원 기출과 EBS 지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50%로 줄었고, 간접연계가 되었다. 따라서 이 총체적 학습을 ‘평가원 기출(최소 5개년, 많게는 10개년)’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평가원 외 지문을 학습할 거라면, 소재 연계로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EBS를 공부하는 것이 수능날 ‘데자뷰(이 지문 본 것 같은데?)’를 느끼기에 좋을 것이다.



■ 기출 7 EBS 3

이렇게 기출 및 EBS 지문들로 어휘와 해석을 늘리고, 마지막 단계인 '지문독해'는 다시 수능 기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물론 수능 기출 지문들도 꼭 단어와 해석을 챙겨야 한다). 당연하다. 수능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기에 '수능 지문'은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가를 알려면 수능 기출로 해야 한다. 이미 고3 수준의 단어, 해석력을 갖추었다면 이 마지막 단계는 '금방' 할 수 있다. 어렵고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일은 어휘 암기, 그리고 수많은 문장들을 '직접' 해석하고 교정하는 것. 이 기간을 끝내면 광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능영어 자료는 평가원 기출과 EBS 교재라 할 수 있고, 둘의 비율은 7:3 정도가 적당하다. 선티 수업의 중점은, 구문 및 어법 강의를 제외하고는, '지문독해'에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은 강의로 '방향성'과 '틀'만 잡은 후 스스로 문장을 보며 중얼중얼 하면서 해석하고 꼬이고 교정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강으로 Logical Frame, Natural Freedom 구문 강의를 촬영할 것이고 이를 들으면 해석의 큰 틀과 방향성을 잡는 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누구의 구문 강의를 듣든 들은 후 그 책의 문장들을 스스로 '5회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해석하는 걸 봐서는 늘지 않는다. 직접 자신이 해석해서 체화가 되어야지. 반면 지문독해는 혼자 하기가 힘들다. 이제 단어도 알겠고 문장 해석도 어느정도 하겠는데,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 길을 명확하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내 역할이며, 그것이 KISS LOGIC이라 할 수 있겠다. KISS LOGIC에 관해서는 '독해' 부분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수능영어를 어휘, 해석, 독해 순으로 한 영역씩 찬찬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Chapter .1

Keep It Short and Simple

■ 어휘

Part 1. What

Part 2. Where, When

Part 3. How

Part 4. To what extent

Keep It Slow but Steady

Chapter .1

■ 어휘

전국 수험생 99.9%는(한 0.1% 사이코는 있을 수 있다) 영단어 암기를 싫어한다. 나도 싫다. **내가 절실한 만큼 외우는 거다. 그 대학에 절실한 만큼.** 영단어를 외우는 것은 사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역사 과목처럼 이것을 외우면 나오겠지, 라는 확신이 잘 없고 (물론 수능 빈출 단어들은 있기 마련이다 ^^) 범위가 끝도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 이 영단어야말로 시험 100점을 받으려면 150을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 막연함을 견디고 외우는 것은 절실함밖에는 없다. 자신이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면, 응당한 노력을 하자. 특히나 의치한약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선티도 가보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수능영어 어휘 암기는 baby인 수준의 암기를 대학에서 할 테니 **'아 지금은 감사한거구나 ㅠ'**하고 마음을 고쳐먹도록 하자. 영어 등급 안 나와서 영어를 임의로 한 등급 올렸을 때 **정시 지원칸 색깔이 빨주노에서 초록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나중에 울지 말자.

What.

무엇을 외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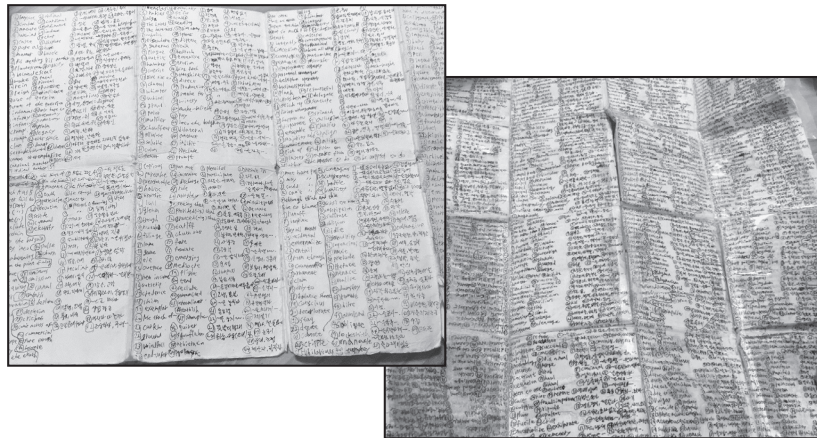


앞서 상술했듯 본인이 절평영어 2,3등급 이상 수능 수험생이라면 따로 단어장을 추천하지 않는다. 단어장 집착 좀 그만하자. 그래도 굳이 하나를 갖고 싶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수능영어 단어장, 없다면 셉티의 신간 단어장^^ 혹은 올해 EBS 연계교재 단어장을 추천한다. 중요한 건 어떤 단어장이든 '예문도 다 해석하면서' 5회독은 해주는 것. 그리고 나면 단어장에 그만 집착하고, EBS 지문에서 그리고 기출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따로 적어 외우도록 하자. 그것이 나에게 최적화된(optimized) 단어장이며 최고의 단어장 아닌가? 내가 마주치는 모르는 단어들은 닥치는 대로 외우도록 하자.

단어는 총알이다. 다다익선이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든 외우는 단어를 줄여보려고, '각주 단어도 외워야 해요?'라고 물어보는데, 케바케다. 정말 잘 안 쓰이는 자잘한 단어인데 각주라면 안 외워도 되지만(전문 용어, 소설에 나올 법한 묘사 단어), 기출이나 EBS에서 분명 왕왕 마주치고 각주가 아닐 때도 있는데 각주인 단어도 있다. 따라서 이걸 구분하면 좋은데.. 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고, 등급이 1, 2등급 정도 나온다면 나름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해당 단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인지, 특수한 단어인지. 괴랄한, 구체적인 뜻의 단어가 아니라면(새 이름... 행동 묘사 단어...) 그냥 외워두자.

Where. When.

언제, 어디서 외울 것인가.



Anywhere. Anytime.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본 중학교 단어 및 고1 단어까지 외워야겠지만, 현 수능영어 3등급 이상 정도라면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따로 내는 시간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 EBS, 기출에서 따로 옮겨 적을 때'뿐이다. 내가 모르는 단어만 적혀 있는 단어장이 나에게 최적화된 단어장이 아닌가? 사진을 보면 선티가 수험생 시절 외웠던 단어장이 있다. 수능 전과목 거의 만점을 받았던 고등학교 선배가 전수해준 것으로, A4 용지를 16등분으로 접어서 하이테크 0.25로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한글 뜻을 적은 것이다. 엄지로 한글 뜻을 가리고 외우면 된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ㅎㅎ. 이 자신이 모르는 단어만 적혀있는 단어장을 '언제 어디서나' 외우는 것이다. 이동할 때, 쉬는 시간에, 뺨이 탄소리를 길-게 하실 때, 화장실에서 제일 잘 외워줍니다.

선티는 밥먹을 때도 양치할 때도 외웠는데 이런 소화가 안된다는 친구들도 있으니 취사선택하시고. 그럼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자신이 절실하다면. '단기간에' 급상승하고 싶다면.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무난 무난하게 공부해서~ 수능에서 무난한 점수 받고 싶다~ 하면 안 하셔도 된다. 세상에 군대 빼고 강제는 없다. 이미 자기는 중학교, 고1, 고2 시절 단어 미친듯이 외워서 어휘력이 수능 수준을 상회한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적당히 유지만 하면 된다. 이런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신이 단어가 애매하다 느끼는 모든 친구들은 자투리 시간에 자신만의 단어장을 본다. 영단어가 지겹다면 국어 문법이나 탐구 암기 영역을 가끔 외워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자신에 대해 '대견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네'라는 이 느낌이, 나를 수능까지 이끌어주고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How.**어떻게 외울 것인가.**

‘단어 외우기 진짜 지겨워 죽겠고 어떻게 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라는 친구들이 많을테니,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 할 것이다. 셴티는 ‘어원 활용’과 ‘연상 활용’ 둘 다 적극적으로하기를 추천한다. 둘 중에 뭐가 좋고 나쁜 건 없다. 그저 자신이 잘 외워지는 것으로 확실히 외우면 장땡.

多多益善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일수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input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원보다는 연상법을 더 추천하는 편이다. 어원 활용도 해야 하지만, 모든 어원을 알 수도 없고 어원을 활용하기 힘든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연상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로 잘 안 외워지는 단어와, 헷갈리는 단어들을 외울 때 사용한다.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수능 영어 시험을 보는 직전까지, 자투리 시간에 단어를 외워야 한다. **다다익선이다.**

A.
연상법.

대표적인 예로 KISS 영단어책이 가장 유명하다. 모든 단어를 연상해서 외울 순 없고 헛갈리거나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단어를 보고 혹은 읽고 ‘자신이’ 떠오르는 무언가와 연결해서 외우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이’이다. 그래야 평생 안 까먹는다. 예능 프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 서울대 치대 출신(중퇴하신 걸로 알고 있다) 연예인 김정훈님이 스페인어 단어를 이렇게 외우더라.

스페인어로 ‘nevar’가 ‘눈이 오다’는 동사인데, 딱 보니 ‘영단어 never랑 비슷하네.. 지금은 여름이니 까 눈이 절대(never) 오지 않지’ 이렇게 머리에 입력하는 거다. 저 프로가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김정훈님은 이 단어를 안 까먹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 셉티 통역장교 시절 아이비리그 출신 동기도 군사용어 영단어를 외우는데 이걸 뭐 어원도 없고 그냥 쌍 acronym(두문자어)였기에 이렇게 외우더라. 터프한 친구라 욕을 섞어가면서 외우더라. **그러니 이 방식은 무슨 수준 낮은 무식한 친구들만 하는 방법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자.**

셉티는 수험생 때 ethics(윤리)와 ethnic(민족의)이 너무 헛갈려서 보다가(지금 보는 너도 헛갈리고 있다면, 어휘 더 탄탄히 해야 한다), 둘이 뭐가 다르지, 민족은 n이 있으니까, n을 보고 수학의 극한이 떠올랐고, 그럼 n은 많다는 거네.. 하나의 민족은 사람 수가 많지 ㅎㅎ 이렇게 구분하고 10년이 흐른 지금도 기억한다. 남이 만들어준 연상법도 나쁘지 않지만(KISS 단어장처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기억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연상 고리를 만드는 재미를 느끼며 외우도록 해보자.

Ethics



Ethnic



B. 어원법.

접두어 + 어근 + 접미어. 영어 단어는 rough하게 얘기하자면 앞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연상법으로 마구잡이로 최대한 넣으셔야 하지만, 어느 정도 외우게 되면 단어의 **‘조합’**이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우선 접두어, 접미어가 보이기 시작한다. 제일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un, in’이 붙으면 반대, ‘re’는 ‘다시’라는 것부터 해서 ‘pre’나 ‘fore’이 붙으면 ‘미리’라는 뜻이고 접미어의 경우는 ‘ness, tion, sion, ty’가 붙으면 명사이고 ‘less’가 붙으면 ‘~가 없는’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접미어는 해당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많다. 뒤에 수능 수준에서 필요한 접두어, 접미어, 어근을 정리해놓으니, **우리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자주 자주 봐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하자.**

Chapter : 3

Keep It Short and Simple

■ 독해

Part 1. AB

Part 2. PS

Keep It Slow but Steady

Chapter 3

■ 독해(KISS LOGIC)

수능영어의 마지막 단계, 독해이다. 어휘가 한 단어에 관한 것이었고, 구문이 한 문장에 관한 것이었다면, 독해란 한 지문에 관한 것이다. 단어와 문장 해석이 나뉘는 수능 지문의 7, 80% 정도 무난히 잘 된다면,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에 집중해도 좋다. 딱 이런 친구들이다. '지문 단어도 거의 다 알겠고, 해석도 거진 자연스럽게 되는데, 읽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답을 못고르겠어요.'라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독해를 연습하면 된다. '하나의 지문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답과 연결시키는지.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지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이다.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국어 비문학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읽어야 읽고 나서 남는 게 있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더라도 어디로 돌아갈지를 아는 것이다. "아니 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나요?" 울 친구가 국어 혹은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는 생각이다. 영어로 돌아오자. 하나의 영어 지문을 읽고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소리지 모르겠어요.'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기억하려고 하고, 다 이해하려고 해서'이다. 특히 수능영어의 경우 이럴 필요가 없다. 왜? 아니 한 지문 읽고 한 문제, 푸는 거잖아. 그 지문의 핵심 내용, 즉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 나는, 모든 정보를 기억할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술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와야 하는 질문이, “그럼 읽으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나요?”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또 그 답대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 지문의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논리적 방법론’을 KISS Logic이라 부르겠다. 이는 주간 KISS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라임을 맞춰 지은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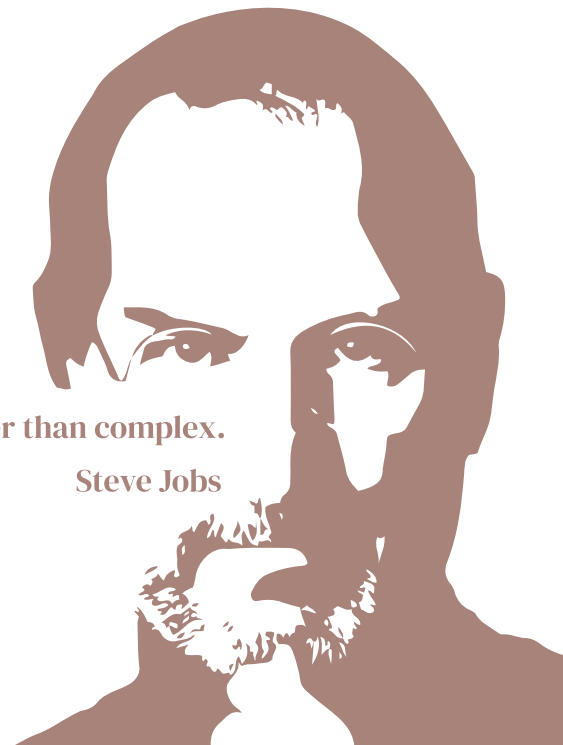
사실 주간 KISS의 KISS는 Keep It Slow but Steady(3월부터 수능까지 꾸준히 기출, EBS, 교육청 등으로 영어 공부했다면 하는 바람에서)이고, 이 KISS Logic의 KISS는 Keep It Short and Simple로, 셉티는 KISS Logic이 영어 독해에서 ‘가장 심플’한 논리적 도구라고 보기에 나온 이름이다. 보통 이렇게 독해에 관한 ‘글의 전개방식’을 설명할 때, 책이나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전개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많은 전개방식이 ‘참고’는 될지언정, 그 많은 전개방식을 ‘체화’하여 실전에서 써먹기는 참 힘든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셉티는 가장 심플하게도, ‘두 가지 도구’만 사용하여 ‘일관되게’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찾아 답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도구만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능영어 지문을 연구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현장 강의를 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KISS EBS를 보고 왔다가 오히려 이 KISS Logic의 방법론과 강의력에 반했다는 얘기를 했으니, 믿고 보고 따라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좋다. 그 두 가지 도구는, 바로 AB와 PS이다. 두 개다 두 개. 우리는 영어 지문을 읽으며, 이 두 가지 도구만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면 되는 것이다.

AB

PS

Simple is harder than complex.

Steve Jobs



AB

첫 번째 KISS LOGIC 도구, AB이다. 셉티가 생각하는, 수능영어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논리이다. 아마 이 AB라는 표현이 익숙할 것이다. 영어의 표현 중에 이 AB를 사용해 외우는 쉬운 표현이 있지 않나? 바로 not (only) A but (also) B이다.

not (only) A but (also) B

이 표현이,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영어 지문을 전개하는 가장 '핵심' 논리라는 것이다. 필자가 해당 영어 지문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자신이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 단순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만' 말하지 않는다. 이와 대비되는 '덜 중요한' 대상을 등장시켜,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덜 중요한 대상이 바로 A가 되는 것이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대상(진술)이 B가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 어떤 대단한 논리적 도구라든지 표현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취향, 주장 등을 이러한 식으로 표현한다.

“야 부먹보단 짹떡 아님?”

“민트 초코보다는 엄마는 외계인 아님?”

“아이돌 그룹 A보다는 아이돌 그룹 B 아님?”

각각의 문장은, '짹떡, 엄마는 외계인, 아이돌 그룹 B(누구인지는 여러분 마음 속에)'가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근데 그냥 “짹떡이 최고지” “엄마는 외계인이 최고지” “아이돌 그룹 B가 최고지”,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립되는 대상을 등장시켜 자신의 주장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수능영어 지문이 바로 이렇다. 대의과약, 어휘, 빈칸, 순서, 문삽, 요약, 2문제 장문의 경우 거의 십중팔구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셉티가 평가원 기출을 풀면, 시험지 지문에는 거의 'AB'만 적혀있다. 그 B가 필자가 주장하는 대상(진술)이고,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혹은 빈칸의 경우, 짹떡 / 엄마는 외계인 / 아이돌그룹 B를 강조하는 문장이 답인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부먹 / 민초 / 아이돌그룹 A를 '까는' 부분이 답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어쨌든 답은 A, B 중에 하나인 것이고, 글을 읽으며 우리의 목적은 '지문에서 필자가 말하는 AB를 찾는 것이다.

무엇이 A고 무엇이 B인지 찾으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단서가 바로 'not' A 'but' B라는 것이다. 지문에서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 나오면,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A와 B의 개념을 잡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2020 수능 어법 문제다. 이 지문은 어려운 용어들과 추상성 때문에 어려운 EBS 지문이었는데, 어법 문제가 아니라 주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자.

Among hunter-gatherers, animals are **not only** good to eat, they are **also** good to think about, as Claude Levi-Strauss has observed.
(20.수능.29)

수렵인들 사이에서는, 동물이 먹기 좋은 대상
일 뿐만 아니라, / 생각하기 좋은 대상이다 /
C가 말했다.

자, 위는 해당 문장에 대한 해석이다. 저렇게 했으면, 잘, 한거다. 현대 저렇게 해석하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넘어가면 지문을 다 읽고 남는 게 없는 것이다. 해석은 거의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오?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네? 중요한 문장이구나. 집중해서 읽으며 AB를 파악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문장의 AB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위 문장에는 필자가 주장하는 동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담겨있다. A: 먹기 좋은 대상 vs. B: 생각하기 좋은 대상.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동물이 생각하기 좋은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지문은, 토테미즘에 관한 지문으로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수능영어의 본질이 not A but B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줄까? 다음 지문을 보자. 2020학년도 수능영어 비연계 빈칸 33번 문제이다. '대놓고' not A but B자리의 B를 빈칸으로 물어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지문을 읽으며 중요한 문장에서 무엇이 A이고 무엇이 B인지 체크하면서 A 혹은 B로 grouping 하면서 읽으면 되는 것이다.